

HOME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우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 권택근기자 | Ⓞ 승인 2026.07.09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이윤철)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심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 칠곡지사는 △우기 대비 배수계획 및 수방 자재 확보 현황 △절·성토 비탈면 붕괴 예방 조치 △현장 주변 위험요소 사전 제거 여부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사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기상 변화를 상시 예찰하여 호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작은 위험 요소라도 철저히 관리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택근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